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성장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알면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내 아이에게 나눔을 가르쳐 주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건강하게 자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아이의 생일을 이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멋진 가족이 될 거예요.’ - 생애 첫 기부’에 참여하신 가족들의 말씀

2008년 본부로 전해온 돌 반지에서 싹튼 나눔이 기적처럼 커져서 2013년 3월, 올해에만 벌써 100명의 아기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설레는 일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눔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생애 첫 기부’ 함께 해요

‘생애 첫 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아시아의 가난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본부 사무실로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면 기념액자를 만들어 드리고 감사장을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선물과 감사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생애 첫 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 첫 기부 신청문의 02.727.2267
- 후원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2~13 신앙의 해 자선실천, IDO 제가 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 심기 생명나눔, I.DO 제가하겠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실천을 못하는 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의 해를 맞아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펼치는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장기기증희망 신청

장기기증희망신청,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홈페이지 OPEN!
<http://www.obos3042.or.kr>
신청문의 1599-생명살이(3042)

♥ 조혈모세포기증희망 신청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은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이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약속을 기다립니다. 신청문의 02.727.2268

♥ 헌혈 및 헌혈증 기부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헌혈증은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헌혈과 헌혈증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나눔이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02.727.2268

♥ 장기이식 대기자 치료비 후원

생명은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귀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02.727.2288
하나은행 850-910006-0910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후원

매년 수많은 어린이들이 백혈병·난치병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술기회가 오더라도 비용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02.727.2288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더 이상 혼자 내버려두지 마세요! **함께하면 지킬 수 있어요!**

희망을 여는
개인상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인상담 및 안내

개인상담 및 유가족 지도요임 함께 살아 숨쉬는 다정한 공간

바람이 부는대로 | 햇빛이 비추는대로 ☀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모든 것들이 캄캄한 암흑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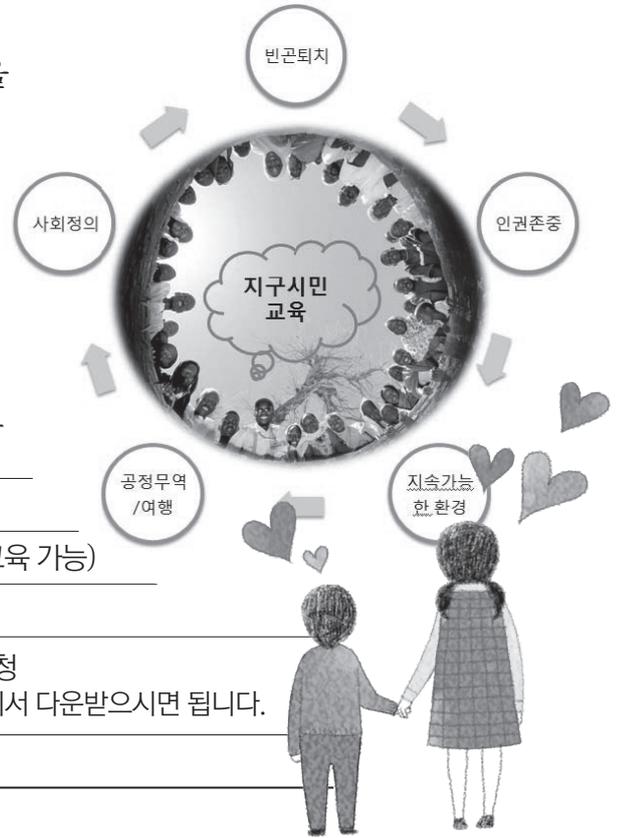
- 대상: 자살생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개인 상담비 무료 / 개인상담의 경우 방문하여 초기면접 후 상담결정(주1회 50분)
- 운영시간: 월~금요일(10:00~17:00)
- 상담신청 및 문의: 02.318.3079

슬픈 상처를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마음을 들여다 보세요.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주세요. 귀를 기울여준다면 마음을 들을 수 있죠. 마음을 알고만면 어루만져 줄 수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 굳은 다짐을 나누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은 다시 웃을 수 있죠.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2013 지구시민교육'

지구촌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에서는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며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시민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구촌빈곤퇴치, 인권존중,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 공정무역여행, 사회정의 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찾아봅니다.



신청기간	2013년 3월 4일(월) ~ 29일(금)
교육기간	2013년 4월 ~ 11월 중
교육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 상황에 따라 요청장소로 출장교육 가능)
교육대상	선착순 10팀, 중·고등학생 단체 (20명 이상, 40명 미만)
신청방법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obos@catholic.or.kr로 신청 ※ 신청서 양식은 본부 홈페이지 http://www.obos.or.kr 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02. 727. 2287 (국제협력팀 박진솔 간사)

'문턱 없는 지구촌'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한 사람이 시작하고, 그것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 또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해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뜻을 나눈다면 지구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띠앗누리 15기 캄보디아 사랑여행 체험수기



출국 하루 전, 짐을 싸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내일 어디에 가는거지? 무엇을 하러 가는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가득 했습니다. 발대미사를 드리면서 '사랑여행을 하고 오자' 라는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하러, 왜 캄보디아라는 곳에 가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캄봉고 마을로 들어가 본격적인 띠앗누리 일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만 여기던 편리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등 한국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떼제기도는 저의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 속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캄봉고 마을의 친구들,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웃으며 인사해 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며 편지를 건네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 거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 것 같아 많이 미안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행복을 전해 주었기를,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봉사활동' 보다는 '사랑여행'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띠앗누리 여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정작 너무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돌아온 것 같아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 행복한 마음 오랫동안 간직하며 이번 사랑여행을 통해 배워 온 많은 것들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해봅니다.

띠앗누리 15기 단원 김현주 엘리사벳

함께하는 사회사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미사에 초대합니다. 사회교정사목센터 성당에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주일마다 센터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출소자, 수용자 가족, 범죄피해자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일시 3월 24일·4월 14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지하 성당

43주년 기념미사에 초대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로 설립한지 43주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교정사목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가톨릭회관에서 미사를 봉헌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사형수, 출소자 및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미사입니다.

- 일시 2013년 4월 1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창립 1주년 기념식

- 일시 2013년 4월 11일(목) 15:00 ~ 17:00
-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내용 센터 홈페이지 오픈식, 축하공연, 가톨릭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출범식, 생산품 홍보 등
- 문의 02)727-2482, 이준혁 담당관

이제 장애인들이 만드는 친환경 봉헌초로 기도하세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사랑손장장애인보호작업장'과 '성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친환경 봉헌초'를 3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친환경초는 천연안료를 사용하여 그늘음이 없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당에서 친환경 봉헌초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 문의 02)727-2481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자원봉사 기본교육 주말 기본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기쁜 소식

- 일시 2, 4, 6, 8, 10월 마지막주 목요일 14시~17시
- 장소 가톨릭회관 426-1호
- 문의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 교육비 금요천원정 (사전납입 : 우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005-400-914600)
- 문의 02)727-2248

온라인으로

장기기증 서약하기

www.obos3042.or.kr

참여문의

1599-생명살이(304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2013. 1 ~ 3)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시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37호점 서울 마포구 코코가츠
- 40호점 서울 중구 다모아 편의점
- 43호점 서울 종로구 투썸플레이스 안국점
- 46호점 부산 동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 38호점 서울 강서구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 41호점 서울 금천구 로사나눔터
- 44호점 서울 광진구 호프나라

- 39호점 대구 동구 아슴심리치유센터
- 42호점 서울 영등포구 우리피부뷰티고과
- 45호점 경기 성남 이장우의 사랑헤어

※ 현재 약 16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99

▲ 52,502 명

(2013년 3월 5일 현재)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ARS 060-700-111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지로 7522277
- 우리는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140-001-982286 국민은행 083-01-0309-453
-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하나은행 850-910006-091104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 이혜은 (2011.12.26생 어 이현성/ 모 한나, 1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노윤성 (2012.02.20생 어 노형일/ 모 송정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지을 로베르도 (2012.02.25생 어 이재승/ 모 김나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시윤 (2012.11.07생 어 이광제/ 모 정지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호진 (2012.01.30생 어 이민규/ 모 신예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시훈 바오로 (2012.02.14생 어 김일두/ 모 안정숙),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오승우 (2012.02.15생 어 오세훈/ 모 송지혜),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정효정 비올라 (2012.02.14생 어 정형식/ 모 윤은주),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박수빈 클라우디아 (2012.11.01생 어 박해운/ 모 김지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재연 (2012.02.04생 어 이현우/ 모 이선경),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신희성 파트리시오 (2012.03.17생 어 신윤수/ 모 이윤정),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양세라 (2012.02.24생 어 양윤석/ 모 박혜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정태운 바오로 (2012.02.13생 어 정대영/ 모 윤슬기),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신정훈 가브리엘 (2012.02.14생 어 신인호/ 모 이지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주원 (2012.03.06생 어 김희윤/ 모 김수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다을 (2012.10.19생 어 김진호/ 모 이선행),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김동환 (2012.02.08생 어 김준규/ 모 김수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기은 (2012.11.07생 어 김승대/ 모 김지연),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이선우 리파엘 (2011.02.17생 어 이승운/ 모 이수진),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이태현 율리아 (2010.02.24생 어 이정혁/ 모 편선민),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태강 여호수아 (2012.02.24생 어 이정혁/ 모 편선민),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광명서 도미니코 (2007.08.11생 어 광호민/ 모 김경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백인재 가비노 (1989.02.19생 어 백승열/ 모 윤경실),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백인재 대건 안드레아 (1992.03.07생 어 백승열/ 모 윤경실),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영우 임마누엘 (2011.12.21생 어 김재현/ 모 신현경),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박신욱 (2011.03.07생 어 박상혁/ 모 김미남),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김규리 엘리사벳 (2012.11.17생 어 김태국/ 모 김용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유권민 (2010.02.25생 어 유형석/ 모 이자연),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규하 토마스 모어 (2012.03.13생 어 이관희/ 모 석효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조원재 (2012.02.18생 어 조현우/ 모 강경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조운우 (2012.03.04생 어 조윤영/ 모 최나미), 136만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최민준 (2012.03.23생 어 최지훈/ 모 최선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광여은 (2012.04.24생 어 박세현/ 모 손은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동영 (2012.02.21생 어 이동운/ 모 윤정민),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진우 발렌티노 (2011.02.25생 어 김명선/ 모 김선형),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윤지 데레사 (2005.10.14생 어 이진택/ 모 임영), 5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이상열 (2009.03.22생 어 이진택/ 모 백인애), 5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김시완 (2012.09.04생 어 김종화/ 모 안수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재운 (2012.11.19생 어 이상훈/ 모 이보미),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재우 다니엘 (2012.02.16생 어 이호용/ 모 서은지),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조은우 (2012.03.04생 어 조윤영/ 모 최나미), 136만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최민준 (2012.03.23생 어 최지훈/ 모 최선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광여은 (2012.04.24생 어 박세현/ 모 손은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동영 (2012.02.21생 어 이동운/ 모 윤정민),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김진우 발렌티노 (2011.02.25생 어 김명선/ 모 김선형),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윤지 데레사 (2005.10.14생 어 이진택/ 모 임영), 5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이상열 (2009.03.22생 어 이진택/ 모 백인애), 5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 김시완 (2012.09.04생 어 김종화/ 모 안수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재운 (2012.11.19생 어 이상훈/ 모 이보미),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이재우 다니엘 (2012.02.16생 어 이호용/ 모 서은지),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